

 제주특별자치도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보도자료	2026. 6. 23.(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기술지원조정과장	송효선	☎ 760-7510
		업무담당자	고희열	☎ 760-7512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제주 농업인,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‘우수상’ 쾌거

- 농촌진흥청 개최 ‘2026년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’ 참가 -
- 라이브커머스 우수상 ‘김향수·노미경 씨’, 스마트콘텐츠 우수상 ‘양정주 씨’ 수상 -

- 제주 농업인들이 전국 단위의 스마트농업 경진대회에서 뛰어난 디지털 마케팅 감각과 미디어 역량을 발휘하며 정부 포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.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19일 청주 오스코(OSCO)에서 열린 2026년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에서 제주 농업인이 라이브커머스 부문과 스마트 콘텐츠 부문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.
 -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농식품 생산과 유통 과정의 정보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농업 현장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. 당일 현장에서는 라이브커머스를 비롯한 총 3개 부문에 대한 치열한 전국 경진이 펼쳐졌다.
- 이번 본선에는 전국 각 도의 예선을 거쳐 추천된 우수작 또는 농업기술원이 엄선해 추천한 최정예 농업인들이 참여했다.
 - 제주에서는 지난 5월 14일에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의 부문별 최우수 수상자들이 도 대표로 출전해 실력을 겨뤘다.
- 대회 결과 제주 도 대표 참가자들은 전체 3개 경진 부문 가운데 2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.

- 라이브커머스 부문에서는 서귀포시의 김향수 씨와 노미경 씨가 공동 참여해 우수상을 목에 걸었으며, 스마트 콘텐츠 부문에서도 서귀포시의 양정주 씨가 우수상을 받으며 제주의 위상을 높였다.
- 라이브커머스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은 향수팜의 김향수 씨와 노미경 씨는 ‘제주 대정읍 황토밭 햇마늘’을 주제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.
 - 이들은 대정 마늘만의 차별화된 품질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제주의 지역적 매력을 유쾌하게 담아내며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깊이 있게 소통했다.
 - 특히 상품성과 기획력은 물론 실시간 소통 능력과 현장 대응력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으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.
 - 해당 경진은 약 15분 동안 농산물을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 형식으로 진행됐으며, 유튜브 동시 송출과 함께 전문가 심사 50점과 소비자 심사 50점을 합산해 엄격하게 평가됐다.
- 스마트 콘텐츠 부문 우수상을 차지한 오씨팜의 양정주 씨는 ‘제주감귤의 미래는?’이라는 제목의 감각적인 숏폼 영상을 선보였으며, 양 씨는 국산 감귤 신품종인 ‘미래향’의 가치와 우수성을 흥미진진한 영상 스토리로 구현해 감귤 산업의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널리 알렸다.
 - 이 작품은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효과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, 1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짚어낸 뛰어난 창의성과 기획력을 인

정받았다.

- 스마트 콘텐츠 경진은 1분 내외의 쇼츠 영상 작품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내·외부 전문가의 사전 심사 60점과 현장 심사 40점을 합산했으며, 기획력과 창의성, 표현력,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.
- 고희열 도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사는 “제주 농업인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결과 이렇게 값진 성과를 얻게 됐다”라며 “앞으로도 더 많은 제주 농업인이 고도화된 정보화 역량과 영농 경영 마인드를 갖추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말했다.
- 이번 행사의 부문별 수상작과 생생한 실시간 경진 방송 영상은 농촌진흥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